

News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에 은행권 조단위 충당금 또 쌓는다

서울경제

4대 시중은행의 이달 현재 코로나 대출 익스포저는 1조2,000억원가량으로 추산...기존 4조원의 분할납입 유예분까지 더하면 총 5조2,000억원 정도가 '요주의 여신' 관계자,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고, 대손충당금도 추가로 쌓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행 여부 철저 점검"

조선비즈

손병우 부위원장,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쓸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이행 상황 점검"

금융당국, 분쟁조정안 연기 횟수 제한…'월간 키코' 막는다

머니투데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쟁조정 권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담기 위한 실무 회의를 진행중... '키코'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윤석현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안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 관계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

국민 60%, 연 1조씩 성장... '글로벌 툴' 韩 모바일뱅킹

머니투데이

하루 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은 2016년 3조원대 초반에서 매년 1조원씩 늘어... 지난해 9만7,000여건이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올해 1억 건을 넘어설 게 확실시... 모바일뱅킹 혁신에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 그러나 제한된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게 현실... 특화된 시장에서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보험으로는 손해만 보는 보험사들

조선비즈

올해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특히 보험을 팔아서 벌어들인 보험영업이익은 12조6,58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손해보험사도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늘어난 덕분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을 뿐, 보험을 팔아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다를 게 없어...

보험사 매물, 뜨거운 손보 vs 미지근한 생보

헤럴드경제

현재 진행 중인 AXA손해보험 매각을 넘어 라이나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등도 잠재 매물로 거론... 손보사 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울 전망이지만 생보사 딜은 미지근 최근 흥행에 성공한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은 예외적인 사례... 매물이 쏟아지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PBR을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

금융위 "개인 공매도 허용, 피해 우려스러워...방안 마련하겠다"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개미들이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실탄 쌓는 '서학개미'... 달러예금 760억달러 '사상최대'

한국경제

한국은행, 7월 말 국내 거주자의 달러예금 잔액은 762억2,0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27억6,000만달러 늘어... 달러예금 잔액은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증권사 달러예탁금이 급증... 기업 외화채권 발행금액 늘어난 영향" ... 올해 국내 투자자는 해외주식을 112억5,641만달러를 순매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5.85% 늘어난 규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